

제3회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에세이 공모전 심사평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에세이 공모전'은 정순영 기금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제3회 공모전에는 221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평을 간추려 게시합니다. 에세이 쓰기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라는 에세이의 매력이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안이한 소재 선택과 피상적 주제 의식'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작품이 다소 많았던 점은 아쉽습니다. '성찰, 표현, 공감, 소통'이라는 에세이의 성격을 떠올린다면 소재와 주제의 작위적 연결, 교훈적 주제의 생경한 노출은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의 내면을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에세이를 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정확하고 정제된 서술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어휘 활용, 정확한 문장 쓰기, 단락 알맞게 나누기'는 좋은 에세이 쓰기의 기본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모작 중 구성과 표현 면에서 과감하고 개성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실험적인 글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 강렬한 독창성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와 내용의 깊이가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며, 자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세계와 만날 때 의미를 획득합니다. 개성과 소통의 조화를 더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눈물과 잠」은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점이 아쉽지만, 소재와 주제의 조화, 과감한 구성과 전개, 생생한 묘사가 이런 아쉬움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냄으로써 획득한 진정성이 돋보입니다. 「내가 체리를 키운다. 체리가 나를 키운다.」는 평범해 보이는 소재를 활용해 살아가는 이치를 서술한 통찰력이 눈에 띄는 글입니다. 「8:2」는 차분한 전개 가운데 소재와 주제가 잘 조화되어 진중한 울림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3.5×4.5」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해 역동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나를 키우는 팔 할은 너의 세계다.」는 다양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외국인 부문 수상작 「새 같은 그 소녀」는 글의 배경을 소개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새와 같은 소녀를 만난 사건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합니다.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에세이 공모전'은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고대생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